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5. 10.(수)

북영천역 인근 화물열차 탈선(2보)

- 내일(5월 11일) 첫 운행열차부터 정상운행 예상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.10일(수) 11:32분경 북영천역 인근 화물열차 탈선 사고 관련, 내일(5.11일) 첫차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- 18시 현재 터널 내 사고열차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, 열차 이동작업이 완료되면 선로·전차선을 복구하고, 이후 시설물 점검과 시험운행을 거쳐 선로의 정상여부를 판단한 후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.
- 사고 복구에 따라 대구선 열차가 금일까지 운휴될 예정이며, 자세한 열차 운행정보는 철도공사 홈페이지, 코레일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.
-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, 탈선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차와 차축을 연결하는 부품의 파손으로 추정되며, 철도안전감독관·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차량정비 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부품파손 등의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인원 (044-201-4603)